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2017. 2. 22



브라보 안산 BRAVO ANSAN



안산시와 SNS로 친구맺기 [facebook.com/ansancity3](https://www.facebook.com/ansancity3) story.kakao.com/ch/ansancity blog.naver.com/cityansan [instagram.com/ansancity](https://www.instagram.com/ansancity)

발행일 2017년 2월 22일 발행인 안산시장 제종길 발행처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공보관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031.481.2042 / Fax 031.481.3224 / E-mail bravo@diansan.net e 브라보안산 www.bravoansan.net



90블록에서 3개월 동안 현금 90억 정도 “안산에 풀렸다”

건설경기 부양 » 지역업체 · 인력 활용 » 소비 촉진 » 경제 활성화

저성장, 저투자, 저수출, 저소비의 암울한 경제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내외적 여건이 모두 만만치 않다. 더구나 장기간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이에 대해 안산시는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한 발 앞선 선제적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째도 둘째도 모두 경제”라는 마음가짐으로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들을 전개하고 있다.

1 지역 업체와 인력 적극 활용

안산시는 사동90블록 시행사인 GS건설과 지역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시공업체와 장비, 인력 등을 우선적으로 안산에서 조달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토지매입 비용을 제외한 전체 공사비의 30%를 지역에 재투자하도록 함으로써, 그 규모가 총 4,800억 원 규모(1단계, 2단계 포함)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약 48개월 정도의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매월 약 100억 원 대의 비용이 안산 지역에서 사용되는 효과인 것이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1단계 공사의 경우 2월초 기준으로 약 3%의 공정률을 나타내며 약 90억 원 정도의 현금이 지역에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예로,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굴착기(백호) 총 298대, 덤프트럭 총 418대가 투입돼 약 2억 원 정도의 자금이 시중에 풀렸으며, 정규직 및 현장 노동자 인건비, 터파기를 통해 발생하는 토사운반비 등으로 약 88억 원 정도의 자금이 사용됐다. 모두 안산지역 업체를 통해 수급한 장비와 인력이다.

안산시민 채용도 늘었다. 신안산대학교 출신 10명과 함께 안산시민 4명을 직원으로 채용했으며, 청소나 경비, 안전순찰을 위한 인력도 안산시민으로 총원했다. 또한 최대 1,500~2,000명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현장 노동인력 대부분도 안산에서 살고 있는 시민 중심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단일세대로는 전국 최대 규모이다 보니 현장인력들의 먹고 자는 문제도 지역경제와 직결된다. 현재 GS건설 직원용 숙소로 9개 아파트를 사용 중이며 협력사나 감리 직원들도 안산지역의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현장 내 직원과 노동자들을 위한 식당을 운영 중으로, 주요 식자재인 쌀과 생수 등도 모두 안산지역에서 구입하고 있다.

현장 인터뷰



사동90블록 그랑시티 자이 현장소장인 GS건설 이태승 부장(사진)은 지역 상생 협력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었다. 이 소장은 “무엇보다 인력을 수급하기도 편하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안산시민이다 보니 ‘내가 살 집 내가 짓는다’는 마음이 강하다. 그만큼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좋아지고 스스로 우리 아파트를 적극 홍보하기도 한다.”며 “안산에서는 자이를 처음 선보이는데 긍정적 이미지가 형성돼 이후 다른 공사를 수주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아직은 공정률이 높지 않아 재투자된 금액이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골조 공사가 마무리되는 2018년 말까지는 약속한 대부분의 금액이 안산에서 집행될

것”이라며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결제도 거의 현금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시종일관의 자세로 끝까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더불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아파트를 선보이겠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이 최대한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직원들도 지역 상생 협력에 대해 호의적이었다. 안산으로 이사 온 지 17년째라는 GS건설의 조재환 차장(사동, 52세)은 “집에서 직장까지 거리가 2.7km밖에 안 된다. 서울까지 출퇴근할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편하다.”며 “내 부모와 자녀가 살고 있는, 나또한 뼈를 묻을 안산에 이런 복합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우리시의 랜드마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산대학교 건축과(2017년 2월 졸업)를 나와 지난해 11월 GS건설에 입사한 박재현 씨(26세)는 “친구들 10여 명이 함께 지원했는데 그 중 3명이 합격했다. 학교 근처에 있는 현장에 정규직으로 취직하게 돼 정말 기쁘다.”며 “안산에서 공부하며 직장까지 얻을 수 있게 된 데는 시의 역할이 컸다는 것을 확실히 느낀다.”고 고마워했다.



시 재정도 상반기 내 신속 집행... 온누리상품권 사용 지역 확대

2 시 재정 3,500억 상반기 내 조기 집행

안산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며 서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를 위해 올해 상반기 내 3,500억여 원을 집중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월31일 200여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안산시 재정 신속집행 워크숍' 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임흥선 기획경제국장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현실을 직시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 공직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예산 조기 집행 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앞으로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4개 반 20여 명으로 '안산시 지방예산 신속집 행추진단(단장 양진철 부시장)'을 구성해 긴급입찰, 선금지급 활성화, 일상감사·계약심 사·적격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 10대 지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성과에 따라 담당 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해 전 직원의 관심과 노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3 온누리상품권으로 실속쇼핑 즐기기

올해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사업을 확대한다며 지난해 대비 2천억 원이 늘어난 8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안산시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상인대학 등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 사업 결과 상점가 및 전통시장 등록이 확대되면서 온누리상품 권 가맹점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안산시는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처를 확대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난해까지 시민시장 (초지동) 한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던 것을 올해 상점가 두 곳과 전통시장 3곳을 추가했 다. 이로써 상록구 월피동·성포동 일대의 예술광장 주변과 단원구 선부동의 선부광장 주변 상점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한 쇼핑이 가능하며, 상록구 본오동의 신안프라 자와 성포동 스타프라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후 안산시는 상점가 총 26개소와 전통 시장 9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17년 1월 19일 기준 예술광장로에는 전체 250개 점포 중 39개 점포가, 선부광장로에 는 962개 점포 중 60개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했다. 계속 늘고 있는 추 세다.

선부광장로 상점가 상인회 윤종대 회장은 "최근 장기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금리인상 압박, 물가상승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온누리상품권 유통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되찾아 주기를 바란다"며 "실제 사용해 보면 실속 있는 쇼핑이 가능해 가게경제 에도 도움이 되니 많은 시민들께서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누리상품권은 가까운 농협, 신한,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13개 취급 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다.

“ 온누리상품권으로 식재료비 낮추요!”

'먹새만 한 큰 새도 없다'는 말처럼 식료품비는 가정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 20~30% 값이 저렴한 전통시장은 알뜰주부들의 발길 이 끊이지 않는다. 외벌이, 많지 않은 수입으로 가계를 꾸리는 김영순(56세, 이동) 주 부도 전통시장을 즐겨 찾는다. 매월 5·10·15·20·25·30일 5일장이 설 때면 시 민시장에 와서 냉장고 속 떨어진 식재료를 보충한다. 신선한 제철식품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으로 5% 할인까지 받을 수 있어서다. 맛 과 영양이 뛰어난 제철식품으로 가족건강도 챙기고 생활비도 절약하는, 일석이조다. 정월대보름을 하루 앞둔 지난 10일 장날은 무척 추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 람들이 대보름 나물과 부럼, 오곡밥 재료를 사기 위해 초지 시민시장을 찾았다. 김 영순 주부는 "다래순, 피마자, 시래기 등 묵은 나물과 겨울철 대표채소 시금치를 샀 다"며 "요즘 한창인 달래와 봄동, 곰피, 명태 코다리라 쫄깃한 식감이 그만인 겨울 철 별미 새 고막도 안 살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전통시 장·상점가 전용 상품권으로 시중 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다. 구매할 때 액면가 5% 를 바로 할인해준다. 1년 만기 정기예금이나 저축의 금리가 1.5% 내외인 것을 감안 하면 적지 않은 할인 폭이다. 단, 매월 1인당 구매한도는 30만 원으로 제한된다. 올 2월말까지는 설명절 기간으로 50만 원까지 구매한도가 늘었다.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통시장을 이용해 가게살림의 잔주름도 펴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일거양득을 경험하길 제안한다.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안산시, 대기오염 꼼꼼히 관리한다

초미세먼지 초과... 관급공사 중지, 차량 2부제 시행

2005년 이전 제작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안산시가 초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적극 나섰다. 시는 장기간 노출 시 면역력 저하, 기관지염, 피부질환, 안구질환, 폐질환 등을 유발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초미세먼지 발생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이 조치는 대기 중 당일 초미세먼지(PM2.5)의 평균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μg)/m³을 초과하고 그 다음날의 초미세먼지 예보가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μg/m³초과) 이상일 경우 행정기관, 관 발주 건설공사장,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 15시간동안 발령되는 것으로, 조치가 발령되면 비산먼지 신고사업장 관급공사가 중지되거나 환경기초시설(대기배출시설)의 가동율이 하향 조정된다. 공사장은 외부작업이 중지되며 관용차량과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이 2부제로

시행되고, 시 도로에 고압 살수차를 운영하게 된다. 또한, 대기질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으로 안산시는 노후경유차(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를 조기 폐차 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27억을 지원 해 2,066여대의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했고, 올해에도 국·도비 20억여 원을 투입하여 약 1,600여대의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권고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대기관리구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성능점검 결과 정상운행이 가능한 경유자동차로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인 차량(정부지원금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이며, 연식에 따라 165만원에서 770만원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안내 및 신청 접수는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는 1월 9일부터 시작됐다.

◇ 문의 : 안산시 환경정책과(031-481-2247)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김희경 명예기자_kepa-korea@hanmail.net

NEWS
소식通

경기도민회 장학금 접수

16명 대상... 오는 3월 3일까지

2017년도 경기도민회장학금 신청서 접수가 시작됐다. 오는 3월 3일 금요일에 마감된다.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거나 경기도민회 가입기간이 3년을 넘은 회원의 고교생 및 대학생 자녀로 성적이 우수하며 소득수준이 낮거나 예체능 분야에서 입상한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안산에는 고교생 다섯 명을 포함해 총 16명이 배정됐다. 접수는 안산인재육성재단과 안산시민회 두 곳에서 받으며, 오는 4월 중 경기도민회에서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장학금은 고교생 1백만 원, 대학생 4백만 원 한도에서 지급된다.

◇ 문의 : (재)안산인재육성재단(070-4400-8579)

'0세아 전용 어린이집' 확대

밀착 보육서비스 제공

안산시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춘 밀착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9개소에서 19개소로 대폭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추가로 선정된 10개의 어린이집은 모두 평가인증 90점 이상, 정원충족률 70% 이상 등의 요건을 갖췄다. 기존 어린이집 0세아의 경우 보육교사 1명이 아동 3명을, 1세아의 경우 교사 1명이 아동 5명을 보육하는 반면,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1명이 0세아 2명을 보육하게 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해 부모의 사회·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양질의 밀착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보육정책과(031-481-3322)

소상공인 창업교육 실시

선착순 200명, 경영자금 지원 계획

안산시는 오는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 동안 상록구청 상록홀에서 '2017년 안산시 소상공인 창업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 추진하며, 예비창업자와 업종전환자, 사업개시 6개월 이전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마케팅전략, 상권입지분석 등 창업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교육 이수자에게는 창업교육 수료증을 발급해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지원자금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전문 컨설턴트의 일대일 상담창구도 운영한다. 신청은 경기도소상공인지원센터(www.gsbdc.or.kr)에서 온라인으로 받으며 선착순 200명 모집이다.

◇ 문의 : 안산시 지역경제과(031-481-2696)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기부행위는 제한시기가 있을까요?

○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는 상시제한됩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선거콜센터 1390"로 하시면 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도 익명으로 처리하고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기부행위란 무엇일까요?

○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해당할까요?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배우자
※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산시, 아시아 최초 '생태관광 국제회의' 유치 홍보단 꾸려 전국 13개 시·군 순회... 참가 독려



시, "생태관광은 수익을 남겨 자연보존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

안산시가 오는 9월 아시아 최초로 유치하는 '2017 생태관광 및 지속가능관광 국제컨퍼런스(이하 국제회의)'를 홍보하고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생태관광 국제회의 홍보단(이하 홍보단)'을 구성, 전국을 순회했다.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순회는 충남(서산시, 서천군) 전북(고창군, 부안군) 전남(신안군, 해남군, 순천시, 곡성군) 경남(창녕군) 경북(울진군, 영주시) 충북(제천시) 강원(양구군) 순으로 총 1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부분 생태관광지역이거나 안산시 자매결연 자치단체가 중심이 됐다.

첫 번째로 천수만과 가로림만 등 생태관광자원이 풍부한 충남 서산시(시장 이완섭)를 방문한 홍보단은 "이번 국제회의를 계기로 실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생태관광의 모범을 만들어 보고 싶다."며 "뛰어난 관광자원을 보유한 서산시가 함께 함으로써 행사를 더욱 빛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이완섭 시장은 "세계적인 행사를 안산시가 유치하고 단체장이 직접 전국을 돌며 홍보하는 것에 감동했다."며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홍보단은 "생태관광은 단순히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닌 지역에서 소비를 일으켜 소득을 올리고 그 소득은 다시 자연보존을 위해 선순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기존에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니, 이번엔 참가하는 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생태관광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후 방문한 지역의 단체장들 또한 안산시의 생태관광 국제회의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했다.

서천군의 박여중 부군수는 "회의가 우리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으며, 고창군의 박우정 군수는 "관련이 많으니 중심에서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부안군의 김종규 군수는 "요즘은 문화와 생태가 대세"라며 "한때 줄포생태공원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 안산시의 국제회의 개최를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신안군의 오재선 부군수는 "안산은 공장만 많은 곳이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대부분이라는 멋진 바다를 끼고 있는 멋진 생태관광도시임을 새삼 알게 됐다."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밝혔다. 또한, 홍보단은 방문하는 자치단체마다 준비한 대부도 그랑꼬또 와인을 선물하며 "전국 과실주 대회에서 1위한 제품"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했다.

한편, 안산시 관계자는 "국제회의를 통해 얻는 직·간접 경제 파급효과로 24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행사 관련 웹사이트, 뉴스레터 및 전 세계 기관이나 단체 등 2백만 명 이상의 관광 전문가 등에 대한 홍보로 안산시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관광객 유치에도 큰 성과를 낼 것"이라며 "이후 안산시가 생태관광 및 지속가능관광 분야에서 아시아의 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기대했다.

◇ 문 의 : 안산시 관광과(031-481-3059)

안산시 & 한국마이스협회 '협약'

지역특화 마이스 산업 발굴에 가시적인 효과 기대

시, "적정 규모 이상 행사에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한다"

안산시는 2월 7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사단법인 한국마이스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은 협력체계를 확립해 안산시의 마이스산업 활성화 및 상호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마이스산업은 영문 Meeting(기업회의), Incentive trip(포상관광), Convention(컨벤션), Exhibition&Event(전시회와 이벤트)의 앞 글자를 딴 것으로, 국제회의와 전시회를 주축으로 한 유망 서비스산업을 의미한다. 시는 앞으로 시화호, 대부도, 조력발전소를 중심으로 해양, 생태, 에너지 등의 관광자원과 국가산업단지를 바탕으로 한 산업기반을 마이스와 연계·확장하기 위해 마이스협회와의 협조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마이스산업 활성화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 관계를 형성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안산형 지역특화 마이스 발굴에 가시적인 효과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안산시는 올해 마이스 행사를 본격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마이스 인센티브 지원제도'를 운영한다. 시는 참가자 100명 이상, 2일 이상 개최하는 마이스 행사에 1인 최대 2만 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지원 계획을 지난 2월1일 발표했다.

그동안 안산시는 ESP(생태)·PNLG(해양)·ESTC(관광) 등 국제회의를 잇달아 유치해 마이스 하기 좋은 도시로 검증됐으며, 또한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안산사이언스밸리, 시화호, 대부도, 원곡동다문화거리 등 독특한 산업·관광자원을 활용해 '경기만 관광 중심 도시'로 변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중에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올해는 신 성장 동력 산업으로 통하는 마이스 산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지역경제를 선도하도록 행정력을 쏟겠다."고 말했다.국가산업단지와 함께 성장한 안산시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마이스 산업과 같은 지식서비스산업을 구상 했으며, 전국에서도 드물게 과 단위의 조직을 만들어 경기 서남부권 마이스 선도도시로 급성장하고 있다.

◇ 문 의 : 안산시 마이스산업과(031-481-3434)

시민프로축구단 안산그리너스FC, 드디어 창단

“신생팀답게! 패기 있게! 안산과 함께”

지역기업 다인건설(주)

매월 5천만 원씩 2년 동안 총 12억 지원

올 시즌 K리그 챌린지에 첫 참가하게 되는 시민프로축구단 안산그리너스(Greeners)FC가 21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창단식을 개최했다. 구단주를 포함해 선수단과 주요 인사, 안산시민 등 약 800여 명이 참석했다. 팀 명칭인 ‘그리너스’는 ‘숲의 도시, 안산시민’을 상징하며 초보자라는 뜻도 담고 있다. 신생 창단팀의 패기와 신선함을 의미한다.

1부 행사는 LED 댄스팀의 화려한 공연으로 시작했으며

주요 내빈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특히 축구단의 상징인 ‘초록늑대’와 관련해 제작·상영된 영상이 관심을 끌었다. 구단주의 창단 비전도 발표됐다. 2부에서는 구단 엠블럼에 대한 소개와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유니폼이 전격 공개됐으며, 선수단 소개 및 인터뷰 등이 진행됐다. 이후, 장엄한 뮤지컬 공연과 함께 본 행사를 마쳤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안산에는 할렐루야, 경찰청 무궁화축구단 등이 있었으나 잠시 머물렀다 가는 수준이었다.”며 “전국 팔도에서 모인 사람들로 도시가 형성되고 전 세계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많은 도시라는 안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시민들의 에너지를 하나로 응집하기에는 축구라는 스포츠가 제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안산에는 조기축구회가 200개가 넘으며 약 3천여 명의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다.

한 시민은 “축구의 도시 안산에 시민프로축구단이 탄생한 것은 그 자체로 충분한 의미가 있다.”며 “신생팀답게! 패기 있게! 안산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에 대해 축구단 관계자는 “축구를 통해 시민들에게 감동을, 청소년들에게 꿈을

주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할 테니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 소재 지역기업인 다인건설 주식회사(회장 오동석)는 안산그리너스FC와 광고 후원 계약을 맺고, 매월 5천만 원씩 2년 동안 총 1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기업 중 최초의 일로, 안산그리너스FC가 시의 지원을 받지 않는 자립구단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안산形 강소기업 육성 현장을 가다⑥

엘씨파워코리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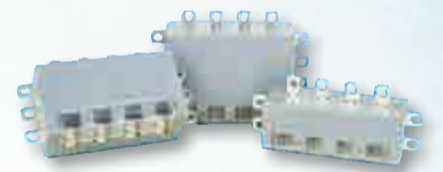
LED 혁신을 꿈꾸다



홍상진 부사장

권영민 대표

LED(Light Emitting Diode)는 반도체 발광소자로 화합물 반도체의 특성을 이용해 전기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전환하는 발광다이오드다. LED는 기존 광원에 비해 효율이 높고 전력은 낮추었으며(백열등의 1/10, 형광등의 1/2) 충격에 강하고 내구성이 좋아 약 10만 시간 사용이 가능하다. 기존 조명등이 낮은 광을 사용하는 효율성의 문제, 수은 및 중금속 물질 사용, 짧은 수명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조명 효율을 약 25% 향상시킬 경우 연간 2,500억kWh의 전력 절감 및 1억5천 톤가량의 이산화탄소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분전반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

스피드 바(Speed Bar) 기반 기술 개발로 신기술보육(TBI)사업자로 선정된 권영민 대표는 2007년 2월 벤처기업인 엘씨파워코리아(주)를 설립했다. 인명피해, 재산손괴, 건물전소 등 커다란 화재 사고로 확산되는 전기 사고의 시작을 잡기 위해 안전한 분전반을 만들고자 2인 기업으로 시작한 엘씨파워코리아. 현재 20명의 직원과 함께 안전성·경제성·편리성·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창의적 제품 개발에 성공, 구리 스퍼터링(sputterign, 도금기술의 일종) 기술 외 14개 특허를 보유한 기업으로 분전반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다.

성능은 높이고 전력은 낮추다

LED등은 LED칩, 안전기, 방열판(Heat Sink)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세 가지 핵심기술 중 LED칩과 안전기는 주로 대기업에서 생산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 제품을 사다 조립하거나 브래킷(bracket) 제작, 디자인 참여 등 시장이 매우 좁은 형편이다. 엘씨파워코리아는 히트 싱크(heat sink, 방열체)에 접근했다. LED의 전기 에너지가 빛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55%의 열은 LED 발광 효율을 저하시키고 LED 자체를 손상시키거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LED와 히트 싱크 연결부에서의 열 방출 속도를 저하시키기 위해 구리 스퍼터링, DLC(Diamond Like

Carbon)코팅, 미세패턴형성 기술 등을 적용해 기존 대비 30% 이상의 열 방출 특성을 개선해 수명을 연장하고, LED 자체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생기원)과 꾸준히 연구해오고 있으며, 강소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 결과 히트 싱크에서 열 방출을 낮추기 어렵다는 인식을 깨고 표면처리로 열 방출 특성을 개선할 방법을 고안해냈다. 생기원 송영식 수석연구원은 “주력 제품인 버스 바(bus bar) 배전반과 관련한 코팅 신기술을 개발했던 경험을 히트 싱크에 적용했다. 히트 싱크의 구조상 깊은 높이와 좁은 폭의 날개 부분을 코팅할 수 있는 기술도 접목했다. 이 기술은 전기 에너지 소모를 줄이며 환경친화적인 코팅 방법으로 국내 판매는 물론 해외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량생산으로 단가도 낮출 수 있어 향후 전망이 매우 밝다.”고 했다.

권영민 대표는 “중국시장에 밀리지 않을 정도의 경쟁력 높은 제품을 개발하는 데 안산시의 강소기업 지원 사업이 큰 도움이 됐다. 기존 제품으로 국내에 130개 유통망이 확보돼 있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지사를 두고 있어 인프라는 구축돼 있다.”며 “신제품이 출시되면 30% 이상의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산시가 한 마음으로 지켜낸 외국인 노동자의 생명

인도네시아 청년 아리핀 씨, 암 극복하고 정상적으로 근무



인도네시아 청년
아리핀과
세운냉동종합주방
오일성 대표

입사한지 50일 된 외국인 노동자의 항암 치료를 도와 새 삶을 선물한 중소기업 사장의 이야기가 시민들의 마음을 울렸다. 인도네시아 청년 아리핀 씨(27세)는 한국에 온지 3개월 즈음, 흉부에 직경 20cm가 넘는 종양으로 임파선암 3기 판정을 받고, 활동성 B형간염, 급성 신장 증세까지 겹쳐 매우 위중한 상황에 처했다. 아리핀 씨가 근무하던 세운냉동종합주방의 오일성 대표는 이를 알게 된 후, 딱한 사정을 외면하지 않고 수술비와 항암치료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스스로 보호자를 자처했다. 결국,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며 아리핀 씨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냈다.

오일성 대표는 “아리핀이 쇼크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그때 생각했죠. 이 아이가 괜히 나한테 왔을 리가 없다. 도망가지 말자. 그 자리에 서있자. 어떻게든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바람으로 병원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한국에선 연고가 없는 아리핀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보호자로 버텨주는 것이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리핀은 살기 위해 여기에 온 것 같아요. 제가 버텨보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신기하게도 여기저기서 도움이 의 손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모두 한마음으로 아리핀을 살려낸 거죠.”

아리핀을 살려낸 배경에는 행정력도 한몫했다. 출장 통역과 공동체 연결, 인도네시아 대사관과의 연결을 지원한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관계자는 “한국말이 서툰 아리핀을 위해 인도네시아 통역 상담원이 병원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했어요. 자신의 생명이 달린 중요한 문제들을 의사와 논의하는데 소통이 필요했던 거죠. 인도네시아 대사관과 연결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들을 논의하는 일도 도와줬어요. 아리핀 씨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뭐가 있을지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한국에

온 젊은 청년의 소중한 생명을 함께 지켜 낼 수 있어 기쁩니다.”라고 전했다.

아리핀 씨는 “치료비 때문에 수술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죽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다시 건강해질 수 있어서 눈물이 나올 것처럼 기뻐요. 저를 도와주신 분들, 사장님, 정말로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진짜 잘할 거예요. 진짜 잘할 거예요”라며 진심이 담긴 마음을 전했다.

◇ 문의 :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1644-7111)
운영시간 월~금 9-18시, 일 10-19시(토 휴무)
김희경 명예기자_kepa-korea@hanmail.net
사진 _ 김진국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산시흥지부

“전기고장, 1588-7500으로 전화하면 긴급 출동해요”

갑자기 전기 설비가 고장 났거나 정전 됐을 때 어디로 연락해야 할까. 전기안전과 관련된 고충을 해결해 주는 곳,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있다. 전기안전119 서비스는 돌발적으로 주거용 전기설비가 고장 났거나 정전 됐을 때 전기안전공사 담당 직원이 긴급 출동해 무료로 응급조치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4시간 운영되는 전기안전 콜센터(1588-7500)로 전화하면 대기 중인 직원과 연결돼 바로 출동한다. ‘전기안전119’는 정부3.0 전략목표의 일환으로 국민들에 믿음을 주기위해 실시하는 서비스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사회복지시설 등은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해 무료로 응급조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경미한 전기공사는 전구·차단기 등의 보수 및 교환 공사, 전력량계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전기기계기구 단자에 전선을 부착하는 공사,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공사(전압660v

용량5w)등을 말한다. 방문한 담당자는 전기고장의 원인을 파악해 긴급 조치할 수 있는 공사는 바로 진행하고, 전문적인 공사가 필요할 경우 전기공사업체에 의뢰하도록 안내한다. 더불어 전기안전 요령도 지도한다. 특히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산시흥지부는 전기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을 시행하고, 풍수해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게 위해 24시간 재난대응체계도 가동하고 있다. 안산시 주요행사마다 전기 안전관리 전문 인력을 파견해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고, 취약설비의 전기안전관리 예방활동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그 밖에도 안산시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며, 사회복지시설에서 주기적으로 봉사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전기안전119 콜센터 신청자도 지난해만 876건이었다. 전기안전공사 담당자는 “아직 많은 시민 분들이 전기



안전119 서비스를 몰라서 이용을 못하신 것 같다.”며 “1588-7500으로 전화만 주시면 대기자가 바로 달려가 전기고장 문제를 해결해 주니,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문의 :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안산부심 (安山負心)

안산에 사는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일컫는 말

환경편



석양이 지고 있는 대부도의 겨울

사람이 살기에 편안하고 좋은 곳이라는 의미의 안산(安山). 고려 태조 시절부터 이어져 오는 천년고도입니다. 특히, 지난 30년 동안 반월·시화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업화의 선도적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제, 다시 30년을 준비하며 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지가 되고자 합니다. 하지만 '산 다 안 산다 하면서 사는 안산'이라는 자조적 표현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들의 땀방울과 열정으로 만들어 낸 안산이라는 도시의 자부심을 되찾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환경을 교통, 자연, 산업, 교육, 문화 등 크게 다섯 분야로 나눠 집중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자연 환경에 대한 자부심을 소개합니다.



벚꽃이 만개한 화랑유원지의 봄

바닷바람과 초록 숲으로 이룬 자연 공감 “유쾌·상쾌” 1인당 도시숲 ‘최고’... 생태관광 핵심도시로 ‘우뚛’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것이 자연 환경이다.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로 평가되는 데는 국토의 90%를 차지하는 숲과 함께 3면이 바다라는 것 그리고 4계절의 다양성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안산 또한 그러하다. ‘산업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숲의 도시’로서 1인당 숲 면적이 5.5㎡에 이를 정도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대부도라는 ‘보물섬’은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로 연인원 1천만 명 가까운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됐다. 숲과 해양생태관광의 도시 안산. ‘삶의 질’이 강조되는 요즘, 최고의 ‘핫 플레이스(hot place)’가 되고 있다.

쾌적한 도심 휴식 공간, 지속적으로 늘려간다 상록구는 트레킹코스, 단원구는 산책숲길 개발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몸과 마음의 치유공간인 도심 속 휴식 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안산시는 ‘숲의 도시’를 선언하고 점점 부족해질 수 있는 녹지공간을 확충하고자 도시숲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주거지역과 인접한 도로 광장 내 15,000㎡의 녹지를 조성하고, 다품종의 수목과 야생화 6만여 그루를 심는 등 개선 대책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도시경관도 나아지고 생태계 서식지가 늘어났다. 실제 환경부의 조사에 따르면, 안산시에는 포유류 10종, 조류 111종, 양서파충류 6종, 담수어류 24종, 식물 320종 등 총 471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생물의 다양

성을 포함한 안산시 생태계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 이에 맞춰 안산시는 도시숲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현재 1인당 5.5㎡인 숲 면적을 오는 2030년까지 15㎡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금도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명실상부한 ‘숲의 도시’ 안산을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다.

도시숲을 활용한 상록·단원 양 구청의 정책도 재밌다. 먼저, 상록구는 지역 내 걷기 좋은 길들을 모아 ‘상록트레킹’ 코스를 개발했다. ‘바람이 부는 대로 일렁거리는 갈대의 속살거림’을 들을 수 있는 갈대습지길부터 ‘문화유산의 향기를 머금고 있는’ 팔곡산 숲속길까지, 총 아홉 개의 코스로 이뤄져 있다. 또한 각각의 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볼거리에 이야기를 더해 지도를 제작·배포함으로써 자연과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지도에는 각 코스 안내와 풍경사진을 비롯해 감상하기 좋은 관람 포인트까지 안내했으며, 자전거길과 공공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는 페달로 정류장도 표기했다.

단원구는 ‘산책숲길 9경’을 선정하고, 이를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체험해 볼 수 있는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봉황산 정다운 숲길’ ‘학교가는길과 원고잔공원 산책길’ ‘중앙공원 태봉 옛길’이 1경부터 3경까지 차지했으며, 고잔역에서 중앙역에 이르는 1km 폐철도 길인 ‘수인선 철로변길’이 4경이다. 뒤로 ‘백운공원 황토둘레길’ ‘관산공원 둘레길’ ‘화랑유원지와 화정천 산책길’ ‘신안산대학교 캠퍼스길’로 이어지며, 마지막 9경 ‘화정동 꽃우물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들이 이용한 우물과 화정초교가 변신한 화정영어마을, 오래된 마을의 종탑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겼다.



갈색으로 물든 갈대습지공원의 가을



아파트 옥상에서 바라본 호수공원의 여름

**서울에서 1시간... 당일 '바다 관광' 최적지 대부도
자연 그대로의 멋과 매력, '보물섬'으로 진화한다**

우리나라에서 24번째로 큰 섬 대부도는 100km의 아름다운 리아스식 해변과 다양한 갯벌 생태 환경, 철새들의 휴식처로 유명하다. 무엇보다 서울에서 약 한 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지리적 장점으로, 연간 천만 명에 육박하는 관광객이 다녀가는 수도권 최고의 해양관광지다.

안산의 대표 관광지 구경(九景) 중 육경(六景)이 모두 대부도에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시화호조력발전소 전망대가 선사하는 1경, 개미허리 아치교를 넘어 불타는 석양에 손을 데일 듯한 구봉도 낙조전망대가 2경이며, 해안에 인접한 능선의 소나무 숲길을 걷는 해솔길이 3경으로 총 74km에 7개 구간으로 나뉘져 있다.

수도권 유일의 재래식 웅기 소금을 만드는 동주염전(4경), 하루 두 차례 사람의 발길을 허락하는 탄도 바닷길(5경), 야생화의 천국 풍도(6경)가 그 주인공이다. 또한 대부도에는 갯벌에서 바지락을 캐는 등 직접 어촌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도 있으며, 어촌민속박물관, 유리섬박물관, 종이박물관 등 다양한 볼거리들도 준비하다.

특히, 최근 전국 과실수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대부도 포도와인 그랑코프(Grand Coteau, 프랑스어로 큰 언덕-대부라는 뜻)도 맛볼 수 있다.

안산시는 대부도를 보물섬으로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들을 전개하고 있다. 먼저 방아머리에 마리나항을 본격 추진하면서 섬 전체의 친환경에너지 시설과 문화를 결합한 휴양자원으로 가꾼다는 계획이다.

이는 1조원이 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돼 안산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르면 시화방조제 전면 해상 11만 4993㎡에 300척 규모의 레저선박 수용시설과 호텔, 상업시설, 도로, 친수 공간 등 편의시설을 포함한 복합해양레저 관광단지가 들어선다. 또한 세월호 추모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해양안전체험관도 인근에 함께 건립될 예정이다.

안산시시 관계자는 “안산시가 보물섬으로 생각하는 대부도는 아직 정갈하게 다듬어 지지는 않았지만, 갯벌과 바다 연안생태, 해솔길, 노을 등 자연 그대로의 멋과 시골스러움이 물씬 풍기는 매력을 갖고 있다”며 “특히 대송습지는 20만 마리의 철새가 찾고 천연기념물 11종, 멸종위기 9종이 서식하는 경기도 최초의 생태관광지역”이라고 설명했다.



2017 내나라 여행 박람회

**“보물섬 대부도로 안산 구경(九景)오세요”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 올 가을엔 ‘생태관광 국제회의’ 개최**

안산시는 2월 16일부터 19일 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7 내나라 여행박람회’에서 홍보관을 운영하고 안산의 숨은 매력을 알렸다. ‘내나라 새로운 발견, 대한민국 맛과 멋’을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2004년 처음 시작해 올해 14회째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협회 중앙회가 주관했다. 해마다 1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 있는 여행박람회는 올해 전국 지자체와 기관 등 300여 곳이 500여개가 넘는 부스를 운영해 지역의 알짜 여행정보를 전했다.

안산시는 관광자원이 풍부한 대부도와 풍도 등 생태관광지를 주력으로 부스 6개를 운영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온 최영숙(60세) 씨는 “올 봄 외국에서 오는 딸과 사위와 함께 가을 만한 곳을 알아보려고 박람회에 왔다.”면서 “안산을 산업도시로만 알았는데 생태자원이 잘 보존된 대부도에 유리섬박물관, 종이미술관, 정문규미술관까지 보물섬을 발견한 느낌”이라며 안산시 대부도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말했다.

1986년 공업도시로 출발한 안산시는 산업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안산갈대습지 조성 등 지속적인 생태계 복원 노력을 해왔고 계획도시로서 여느 타도시보다 녹지율



또한 높다. 오는 9월에는 안산의 생태관광자원에 어울리는 국제회의가 아시아 도시 최초로 안산에서 열린다. 올해는 UN이 정한 ‘성장을 위한 지속가능 관광의 해’로 ‘생태관광 및 지속가능관광 국제회의 2017’이 안산에서 열리는 것이다. 안산시가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노력이 열매를 맺은 것으로, 안산시는 ‘2019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되기도 했다.

안산의 스마트허브가 4차 산업을 이끄는 스마트 팩토리로 변화하며 한국의 실리콘 벨리로 자리매김해 국내외 여러 곳에서 견학을 오고,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대부도에서 생태관광을 즐기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안산시가 주창하는 ‘상상 그 이상을 꿈꾸는 도시’처럼.

안산시 관광과 전형훈 담당자는 “우리 부스를 다녀가신 분들이 안산의 숨은 매력을 느끼시고 가족·친구·이웃과 함께 안산으로 관광·여행 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문 의 : 안산시 관광과(031-481-3409)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Interview

416기억저장소 이지성 소장

“공감하고 대화하며 함께 숨 쉬는 공간 꿈꾼다”

416기억전시관은 고잔동의 오래된 빌라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다. 3년 전,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던 이 골목길을 교복 입고 뛰어다녔을 아이들. 작년 7월부터 416기억저장소를 이끌고 있는 ‘도연 엄마’ 이지성 소장을 만났다. “더 많은 사람들과 조금씩 함께 가고 싶다”는 이 소장의 목소리를 전한다.



Q 416기억저장소 제2기를 맞고 있는데.

작년부터 유가족 부모님 아홉 분도 운영위원으로 들어와 활동하고 있다. 올해 재단 지원이 종료돼 회원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운영비 걱정했는데, 이젠 안정화 됐다. 부모님들은 이곳에서 자료도 모으고, 전시관에서 사진도 찍고, 노트북도 사서 열심히 공부도 한다. 모아놓은 자료들로 책 발간도 준비하고 있고, 최근에는 518기록관도 둘러봤다.

Q 기억교실 관련 활동도 하나.

교육청으로 임시 이전한 기억교실이 원래 교실하고 분위기가 달라서 고민을 많이 했다. 단원고 아이들 250명 이름은 알리고 싶었다. 숫자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꿈을 알리고 싶어서 일상사진들을 전시했다. 학교와 집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웃었는지 알리고 싶었다. 또한 아이들의 사라져버린 꿈을 토대로 학생과 젊은이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었다. 방문객들이 아이들 시를 읽으며 올라오다가 아이들 사진을 발견하면 많이들 운다. 기억교실 개방 이후에 가족·단체 단위의 방문객이 많이 늘었다.

Q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는 배경은.

진상규명이다. 안 좋았던 기억은 잊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잊으면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 나라를 또 만드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희생으로 끝나야지 또 다시 반복하면 안 되겠다. 그러려면 세월호를 잊지 않고 기억해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겠다.’

너무 아파서 그림도 사진도 못 보겠다는 분도 계시지만, 보고 생각해야 기억할 수 있다. 우리는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고 진상규명은 필수다.

Q 참사 이후 가장 크게 변화는.

도연이는 친구 같은 딸이었다. 빈 자리가 너무 커서 가슴이 아프다.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가고... 항상 엄마랑 같이 살고 싶다고 했는데, 그걸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거다. 모든 게 다 없어진 것이다. 옛날의 그런 일상적인 행복이 없다. ‘진상 규명되면 우리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유도 모른 채 아무 준비도 없이, 노력 한번 해보지 못하고 자식을 잃었다. 병이나 사고로 잃은 슬픔과는 또 다르다.

Q 탄핵 정국을 보면서 어떤 마음인가.

탄핵안 가결되던 전날이 도연이 생일이었다. 국회에서 방청하면서 엉엉 울었다. 너무 억울하고 비참해서 그랬다. 이런 대통령 밑에서 좋은 나라라고 믿으며 살았던 우리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밖에 나와서도 계속 울었다.

Q 416기억저장소에서 하고 싶은 일.

더 많이 공감하고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 이곳을 모든 시민 분들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매주 금요일 ‘기억시 낭독회’를 하듯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이나 토론회를 해도 좋고, 연극이나 행위예술 같은 공연도 좋다.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현재 살아있는 아이들과 시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대화하며,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가슴속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416기억전시관 ‘금요일엔 함께하렴’ 매주 진행... 함께 읽는 기억시, 아이들의 삶을 만나다

416기억전시관에서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마다 기억시 낭송문화제 ‘금요일엔 함께하렴’을 연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과 학생 한 명 한 명의 이야기가 담긴 기억시를 유가족과 시민들이 함께 읽는 시간이다. 희생된 학생들을 ‘261’이라는 숫자 대신 한 명 한 명 따로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교육문제창작회 작가 35명이 261명 학생들의 기록을 토대로, 삶이 생생하게 담긴 기억시를 정성스럽게 썼다. 전시관 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육필로 직접 쓴 기억시가 밝게 웃는 아이들 얼굴 스케치 그림과 함께 담겨 전시되고 있다. 행사 시간이 가까워 오자 전시공간에 프로젝터와 마이크, 방석 등이 놓였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전시공간을 가득 채우며 앉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낭송문화제가 시작됐다. 함께한 사람들이 희생된 학생들의 목소리가 담긴 기억시를 떨리는 목소리로 읽는다. 평소 입버릇처럼 하던 잔소리, 방에서 들리던 요란한 피아노 소리,

계단이 울리도록 올라오는 발소리,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그 소리들이 조용히 공간을 채운다. 교복을 입은 증명사진 속 모습으로 남았던 아이들이 요리사를 꿈꾸고, 동생을 돌보고, 노래를 흥얼거리던 구체적인 10대 아이로 살아나는 순간, 시를 읽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울컥. 기억시는 한 아이가 누군가의 딸, 아들, 언니, 동생으로 살아가던 일상들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펼쳐놓았다. 학생들 개별 유품도 늘어서 있다. 미처 행복 인줄 몰랐던 평범한 하루들이 사라진 지금, 많은 사람들의 기억들이 등불이 되어 길을 밝힌다.

- 416기억전시관 위치: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61-3번지 상가건물 3층
- 기억시 낭송 문화제 ‘금요일엔 함께하렴’: 2017년 4월 14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 문의 : 031-411-7372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예비 초등생의 두근두근 새 학기 준비하기

일정한 시간에 기상, 30분 정도 집중... “할 일 많은”

생활 습관

- 규칙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일정한 시간에 기상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체적으로 익숙한 생활리듬이 형성되면 생활자체에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그만큼 심리적 스트레스에 잘 대응할 수 있다.
- 초등학교는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이 분리돼 있다.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수업시간에 화장실을 다녀와야 할 경우 교사에게 손을 들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다.
- 정교한 소근육 발달을 체크하자. 젓가락과 가위 사용이 서툰 경우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필기도구나 채색도구, 악기 등을 정교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소근육 사용이 많은 1학년 생활에 좋은 기반이 될 수 있다.
- 3월 한 달가량은 ‘신나는 1학년’이라는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교과 수업으로 진행된다. ‘아이들을 믿고 자신의 불안을 내려놓는 지혜로운 태도’가 필요하다.

학습 습관

- 올해는 ‘2015년 개정교육과정’이 시행되는 첫 해로 ‘학생을 중심으로’하는 토론, 협력, 탐구 학습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스스로 학습하고 자신의 생각을 적절히 표현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가 도움이 될 수 있다.

- 한글학습은 동화책을 소리 내서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면 학습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올해부터는 1학년의 한글 교육시간이 27시간에서 62시간으로 늘어나 학교에서 조금 더 한글 학습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 최소 30분 정도 집중해서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업시간에 지나치게 떠들거나 교사의 수업진행을 방해하는 잦은 질문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다.

체크 사항

- 의외로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시력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개학 전 시력 검사를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 있으면 대비하는 것이 좋고 시력보정에 한계가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통보해 도움을 받도록 한다.
- 입학 전까지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으면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완료된 예방접종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민원24’에 전산등록 돼 있어야 한다.

◇ 초등 입학 전까지 완료해야 하는 예방 접종 ◇

DTaP (디프테리아 · 파상풍 · 백일해)	추가 5차
폴리오 (소아마비)	추가 4차
MMR (홍역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	추가 2차
일본뇌염	추가 4차(사백신) 2차(생백신)

김희경 명예기자_kepa-korea@hanmail.net

‘2017 안산의 책’ 선정

‘조선이 버린 천재들’, ‘시간가게’... 교육과 역사에 대한 통찰



올해 안산의 책은 어린이 부문 ‘시간가게(이나영)’, 일반·청소년 부문 ‘조선이 버린 천재들(이덕일)’이 선정됐다. 시민들로부터 추천받은 도서를 대상으로 1차 선정위원회를 거쳐 계층별 5권의 후보 도서를 선정한 뒤 시민들의 온라인 투표와 2차 선정 위원회를 열어 최종 선정했다.

안산시 30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은 안산의 책을 중심으로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을 펼친다. 감골도서관 ‘하루 10분 독서운동’, 관산도서관 ‘북 크로스(Book Crossing) 독서운동’, 성포도서관 ‘독서가족 인증제’ 등 도서관별 독서활성화 사업과 함께 다양한 연계행사도 진행된다. 중앙도서관에서는 청소년 독

서토론아카데미, 청소년 독서캠프, 독서감상문·감상화 공개모집, 도서관 서평단 운영, 책문화 축제 등을 연간 운영할 예정이며 안산시 내 초·중·고등학교의 필독서로 지정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책 읽기 활동을 장려·지원한다.

한편, 이나영·이덕일 작가는 ‘2017 안산의 책’ 선포식에 참가해 시민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입시 광풍으로 온전한 자기를 잃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그려낸 ‘시간가게’. 1등이 되기 위해 매일 십 분의 시간을 사고, 자신의 기억을 잃어버리는 윤아의 이야기는 서글픈 요즘 아이들의 고통 받는 교육 현실을 재조명한다. 또한, 역사학자 이덕일은 시대의 벽을 넘어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22명 혁명가 ‘조선이 버린 천재들’을 불러내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 문의 : 중앙도서관(031-481-3866)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책 읽는 안산 / 2월 두 번째 추천도서

이달의 주제 『역사속으로』



재미있다! 한국사

저자 구완희 / 출판사 창비

선사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박물관, 유적지 등 전국 곳곳의 역사 현장을 찾아다니며 배우는 초등 한국사 시리즈이다. 새롭게 바뀐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역사 영역에 맞춰 한국사 핵심 내용을 충실히 담아내면서 우리 역사를 배우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시대별 권위자에게 감수를 요청, 사소한 사실 관계 오류는 물론 서술상의 문제가 없는지 등을 수차례 자문받아 검토하고 다듬었다.



역사@

저자 EBS 역사채널@ / 출판사 북하우스

2011년 10월부터 기획편성된 프로그램인 [역사채널@]의 내용들을 간추려 모은 책이다. [역사채널@]은 한국사의 주요 사건과 인물들을 새롭게 조명한 프로그램으로 학부모, 교사, 청소년 등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는 현직 역사 선생님들의 감수를 통해 역사적 사실에 대한 고증과 확인 작업을 한 번 더 거쳤다.



역사저널 그날

저자 역사저널 그날 제작팀 / 출판사 민음사

주말 저녁 KBS 대하사극을 보기 시작하면 역사에서 빠져 나오기 어렵다. 드라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역사 토크쇼 <역사저널 그날>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역사 연구자에 시인, 영화감독 등 문화감수성이 풍부한 이들이 이렇게 역사를 두고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한국사를 뒤바꾼 ‘결정적 그날’이 어떻게 오늘에 이어지는지, 오늘의 어떤 부분이 뒷날 역사의 그날로 기억될지, 이야기가 꽃을 피우고 끝이 날 줄 모른다.

자료제공 _ 중앙도서관

'안산, 건강한 맛을 탐하다' 발간

땀과 숨결이 깃든
안산의 맛...
"꿈을 더하다"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 더불어 전 세계에서 삶을 찾아 모여든 이들. 그들이 뿜어내는 팔색조의 매력이 넘치는 안산은 정말 특별한 도시다. 문화에 문화가 더해져 더욱 풍성해지고, 풍경에 맛이 더해져 감미로움을 높인다.

안산시는 숨과 땀이 깃든 '안산의 맛'을 찾아 건강한 음식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국요리경연대회'를 열어왔다. 지난해 10월, 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열린 '제15회 라이브(LIVE) 요리경연대회 & 푸드(FOOD) 강좌'는 그 어느 해보다 풍성했다. 안산시는 건강한 음식 메뉴로 경연에 참가한 안산의 '맛집'과 안산의 음식거리가 수록된 책자를 발간해 시민들이 '맛집'을 찾아가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건강식'을 주제로 경연을 펼친 20팀의 참가자들은 과거에 머무르는 음식문화가 아닌 웰빙(well-being) 라이프에 걸맞게 진화하는 안산의 음식문화를 보여주며 안산시 건강 요리의 간판으로 등극했다.



'항제도미'로 대상을 수상한 '흥푸(고잔동)'의 박규희 셰프는 대회의 주제에 맞춰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다. 싱가포르 세계 중식요리올림픽 금메달 수상, 대만 세계요리왕대회에서 한국 팀 최초로 입상한 경력의 박 셰프는 인도네시아, 올란바토르 호텔 등 25년의 경력으로 쌓은 각국 요리의 장점을 자신의 요리에 접목했다. "도미요리에 한국의 강장식품인 인삼을 더하고, 태국식 소스로 맛을 살렸습니다. 기름과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건강한 중화요리를 만드느라 고생을 많이 했지만 안산시민에게 저희 요리를 알릴 수 있어 기쁩니다. 요리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수상소감을 남겼다.

금상은 '솔잎가루 참치탕수육'의 '사조화참치(고잔동)'와 '오리+약밥'에 대한 자신감으로 출전한 '더앤더왕갈비(본오동)'가, 은상은 '수가성순두부(이동)', '땀이골낙지마을(사동)', '오양순추어탕(월피동)', '주현양가(고잔동)', '소담불쭈꾸미(사동)', '뽕사랑종로감자탕(선부동)'이 수상했다.

'맛거리'로는 대부도 방아머리, 전통음식거리 땀이골, 다문화음식거리, 송호맛길, 사리골 참치거리, 한대앞역 로데오거리, 문화광장 맛거리, 중앙동 곱창&전 골목, 선부동 다이아몬드광장, 성포동 맛거리, 본오동 먹자골목, 화정동 썩개마을이 소개됐다.

산촌, 농촌, 어촌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예로부터 양반가와 민가가 어우러져 갖가지 산해진미를 만날 수 있는 안산의 구석구석을 찾아 맛기행을 떠나보자.

◇ 문의 : 안산시 식품위생과(031-481-2232), 안산시 모범음식점(www.food.ansan.go.kr)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단원미술관 다양한 전시 '눈길'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山水 풍경



단원미술관이 '산수(山水, 풍경으로부터)', '단원 김홍도의 거리 풍경' 등 다양한 전시로 관람객의 발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부터 열린 '산수, 풍경으로부터'가 오는 3월 1일까지 연장 전시한다. 강소영릴릴, 구본아, 김보민, 김봄, 김신혜, 박능생, 오민수, 윤세열, 이이남, 임채욱, 임택, 홍란 등 12명의 젊은 소장파 작가들을 불러 내 한국 산수의 다채로운 갈래를 보여준다.

다양한 영역의 개성 넘치는 작품을 감상하는 즐거움과 함께 단원 김홍도의 개성만큼이나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는 작가들을 만날 수 있다. 입장료는 초·중·고·군인·안산시민 1,000원, 일반 2,000원, 미취학아동 500원이다.

단원콘텐츠클럽에서는 '단원풍속화첩', '행려풍속도' 등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단원 김홍도의 거리 풍경' 전시를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단원의 풍속화를 기반으로 한 작품세계를 디지털매체를 통해 아카이빙(archiving, 파일보관)하여 조선 후기 서민들의 일상을 들여다보고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유추할 수 있으며, 3D 영상 등 가상의 현실을 통해 마치 단원 김홍도와 함께 조선의 거리를 걸으며 단원 김홍도로부터 직접 보고, 듣는 듯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전시는 상설로 운영되며 관람료는 무료다.

한편, 2016년 3월부터 11월까지 단원미술관에서 진행됐던 교육 프로그램 결과물을 공개하는 '상상미술공장'도 상설 전시된다. '상상놀이터'에서는 단원과 함께 떠나는 그림세계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펼칠 수 있다. 관람과 체험은 모두 무료다.

◇ 문의 : 단원미술관(031-481-0505, http://www.danwon.org) 이선희 명예기자_jamyou70@hanmail.net

대부 탄도항 누에섬 "상상이 현실로 되다" 어린이위한 예술·놀이공간으로 탈바꿈



대부도 탄도항 누에섬을 예술·놀이의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경기만 에코 뮤지엄(Eco-Museum) '어린이 예술섬' 프로젝트 전시가 누에섬 등대 전시관에서 오는 3월 25일까지 열린다. 지난해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전시하는 것으로,

2016년 누에섬에 관한 생태 조사와 주변 환경을 리서치한 후 작가들의 상상력을 추가, '어린이 예술섬'으로의 변화된 모습을 그려보는 기회다. 경기도 에코 뮤지엄은 안산과 시흥, 화성을 잇는 경기만 일대의 역사, 생태, 문화 자원을 활용해 '지붕 없는 박물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관계 기관들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첫 발을 내딛었다. 경기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안산문화재단과 안산도시공사가 주관하는 '어린이 예술섬'은 서해연안에 위치한 작은 섬, 누에섬의 새로운 이름이다. '어린이 예술섬'은 예술가들의 도움을 바탕으로 빛과 바람, 냄새와 습도, 질감과 맛의 감각 등을 활용, 어린이들의 무한한 놀이 감각을 확장시키는 프로젝트다.

누에섬 주변의 해양 쓰레기를 활용한 업사이클링(up-cycling) 프로젝트인 어린이 놀이터 '누에의 성, Castle of Nu-ee)'와 서해안 생태 어종을 바탕으로 제작되는 '바람에 춤추는 물고기' 스토리텔링(Story telling) '7개의 보물/누에 보물섬 이야기', 누에섬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 '리얼 타임 컬러 렌더링(Real Time color Rendering)'까지, 새로운 시도들을 경험할 수 있다.

안산문화재단 관계자는 "누에섬은 아직 미완성이고, 더 많은 상상력이 필요한 공간이다. 어른들의 의지로 시작되었지만 어린이들이 스스로 가꾸어 나가는 박물관이자 놀이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문화재단(031-481-0522) 이선희 명예기자_jamyou70@hanmail.net



안산시의회 의정회 회원들과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신년인사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에 임했다.

안산시의회, 2017년도 의정회 신년인사회 개최

박일도 의정회장 “후배 의원들의 열기 띤 참여 부탁” 이민근 의장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구현하겠다”

안산시의회(의장 이민근)는 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2017년도 안산시 의정회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열린 행사에는 박일도 의정회장을 비롯해 이민근 의장, 시의원, 의정회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박일도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17년 새해를 맞아 작년보다 더욱 더 활발한 활동으로 의정회가 발전되길 바란다.”며 “의정회원 뿐만 아니라 후배 시의원들의 열기 띤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러 이민근 의장은 “오랜 시간 동안 안산시의회에 애정을 갖고 후배 의원들에게 조언과 가르침을 주신 선배 분들이 계셨기에 시의회가 발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선배 의원님들의 정신을 이어 받아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에 참석했던 시의원들도 축사를 통해 신년인사회를 축하했으며, 박일도 의정회장과 공로연수 중인 박용덕 전 사무국장이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데모 스마트공장’ 방문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홍순목)가 최근 4차 산업혁명 구축 사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데모 스마트공장’을 방문했다.

홍순목 위원장과 나정숙 간사, 김재국, 성준모, 윤태천 위원은 지난 7일 단원구 성곡동 813-2번지에 위치한 ‘데모 스마트공장’을 찾아 관련 사업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위원들은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대해 브리핑 받고, 스마트팩토리 랩(Smart Factory LAB) 등 시설 내부를 둘러보며 스마트 공장 지원 프로세스와 기술 적용 사례를 직접 확인했다.

지난해 정부 공모에서 선정돼 안산에 문을 연 데모 스마트공장은 △정보통신기술(CT)과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기술의 시범 적용 및 테스트베드 조성 △기업별 맞춤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현장 체험 및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스마트공장 저변 확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기준 지역 내 138개사가 지원사업의 혜택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1개사는 1호 대표 스마트공장으로 선정, 50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아 국내 최고수준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성과를 냈다.

현장에서 공정 과정을 꼼꼼히 살핀 위원들은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기술 적용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데모 스마트공장이 민간 협력을 토대로 스마트공장 확산의 구심점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이 7일 데모 스마트공장 내 ‘스마트팩토리 랩’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홍순목 위원장은 “안산에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기반이 될 데모 스마트공장이 들어선 것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제조 기술을 갖춘 미래형 공장 모델로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의학 칼럼 •

가슴 아픈 사연



가슴이 아프다 혹은 빠근하다. 목 뒷덜미가 뻑뻑하고 자주 피로감을 느낀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몸의 불편을 느끼며 살아간다. 그러나 그러한 증세가 정말 무시해도 될 만큼 사소하고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중병의 신호탄인지를 알기란 쉽지 않다. 또 설령 몸의 이상신호를 감지했다 해도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는 동안 병은 악화되기 마련이고 불안과 초조에 더욱 괴로움은 커질 수 있다. 흉통이 대표적인 경우다. 흉통이란 가슴 부위에서 느껴지는 모든 종류의 통증을 의미한다. 피부, 근육, 뼈를 포함해 가슴 내·외부의 모든 장기가 흉통을 일으킬 수 있다.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선 흉통의 위치와 특징, 나타나는 부위, 위험요인 및 지속시간, 호흡과의 관련성 등 모든 요소를 심장전문이나 1차 의료 주치의에게 체크 받아야 한다. 문진과 간단한 심전도 및 심장 초음파 검사만으로도 99% 원인 규명이 가능하니 두려워만 할 일이 아니다.

협심증은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동맥의 협착 또는 경련으로 심장근육에 필요한 만큼의 혈액이 없는 '허혈' 상태에서 발생한다. 심장은 왼쪽에 있지만 가슴 중앙부나 중앙하단 부위에 손바닥 이상 정도의 비교적 넓은 면적에 걸쳐 증상이 나타난다. 바늘로 찌르거나 칼에 찔린 듯한 예민한 통증보다는 빠근하고 터질 것 같으며 짓눌린 것 같은 통증이 느껴진다. 통증이 왼쪽 팔의 안쪽이나 턱 쪽으로 이동하기도 한다. 심장이나 대동맥, 폐동맥의 심각한 장애로 인한 흉통은 호흡곤란, 식은땀, 어지러움과 같은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또 노인이나 당뇨병 환자의 경우 전형적인 흉통 없이 호흡곤란이나 소화불량과 같은 증세로 나타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협심증에 의한 흉통은 안정을 취하거나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작은 알약을 혀 밑에 넣으면 몇 분 이내에 사라진다. 그러나 심한 흉통이 30분 이상 지속되면 급성심근경색의 가능성이 있으며 대동맥의 벽이 찢어지는 대동맥 박리, 피떡이 폐동맥을 막는 폐색전증, 폐의 일부가 터져 흉강 안에 공기가 차서 폐를 압박하는 기흉 등은 응급 상황이니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

● 이호준_더베스트내과 대표원장(현 안산시의회 회장)

• 독자 기고 •

어머니의 고향... 안산

3년 전 아버지가 작고하신 뒤 어머니는 대구에 사는 큰형님 집으로 모셔졌다. 그 전에는 고향이자 삶의 터전이었던 이곳 안산의 단원구 성곡동 빌라에서 70평생을 사신 분이다. 그러나 대구로 옮겨 가신 후부터는 마음의 병을 앓으며, 2년 가까이 정신치료 약을 드셨지만 별반 효험이 없었다. 상태는 더 나빠지는 듯했고, 약을 드시고도 잠을 못 이루시고 식욕도 없어하셨다.

평생을 안산에서 사셨기에 주변에 친구들도 많으시고, 연락만 하면 서로 만나 반가운 수다도 떨고, 며느리 흉도 보며 웃고 지낼 수 있는 동년배 할머니들이 계신데, 생면부지인 멀리 대구까지 가서 사시게 된 것이 향수병에 걸린 원인인 것이다. 형님이나 나나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우 아들이니까 홀로 계신 어머니를 모시는 게 자식된 도리라 생각했지만, 고향 떠난 어머니에겐 그게 병이 됐고 느닷없는 타향살이를 감옥으로 여기신 게다.

안산에 오시면 가끔씩 들려 함께 이야기 나눠줄 딸과 며느리도 가까이 살고 있고, 경로당에 가면 하루 종일 앉아 국수도 끓여 먹으며 1점에 10원씩 하는 고스톱도 치면서 웃을 수 있지만, 타향살이야 어디 그런 맛이 있을까 싶다. 더구나 칠순 노인이 언제 무슨 흥허물을 터놓을 친구를 사귄 수 있겠는가. 그러던 녀 달 전, 엄마는 기어코 '귀향 선언'을 하시더니, 성곡동에 작은 빌라를 얻어 올라오셨다. 자식들의 만류도 당신의 생각을 꺾지 못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머니는 그 후로 건강도 좋아지고 몸과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 없다며 기뻐하셨다. 그렇게 우울해 하시고 시름시름 앓던 어머니는 지금 어린 소녀처럼 밝게 웃으시고 늘 건강하시다. 어머니에게 너무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왜 진작 엄마를 고향에 계시도록 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들 정도였다. 어쨌거나 너무 잘되었다. 그동안 자식에게만 전념하시던 분이라 갑자기 오롯이 당신만을 위해 준비된 시간들이 버거웠을 터. 어찌됐거나 당신의 여생이 외롭지 않도록 성심을 다해 보살펴 드려야겠다는 마음뿐. 그리고 누가 뭐래도 엄마에겐 고향인 안산이 최고다.

● 이기태(단원구 광덕동로)

• 기자수첩 •

아픔의 불빛이 만들어낸 딱 하루



세월호 참사 1000일 추모음악회 뮤지컬 공연. 딸을 그리워하는 엄마 앞에 교복을 입은 딸이 나타나 친구들과 함께 무대를 뛰어다닌다. 스크린에는 말괄량이 여학생들이 깔깔거리며 교정을 뛰어다니는 동영상도 흘러나왔다. 마치 금방이라도 무대 뒤에서 튀어나올 것 같은 여학생들 웃음소리가 너무 밝고 생생해 한순간 시간이 멈춰버린 것만 같았다. 그 순간 내 눈 앞에 이제 갓 중학교에 올라가는 딸아이가 새 교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던 표정이 오버랩 됐다. 방어할 틈도 없이 눈물이 나왔다. 옆자리에선, 딸과 함께 오신 한 여성분도 어깨를 떨며 울고 계셨고, 앞자리엔 대학생 아들과 함께 오신 한 남성분이 고개를 떨고 채 연신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이제 매일 교복을 입게 될 딸아이나 단원과 희생자들과 동년배였던 대학생 아들을 볼 때마다, 그리고 거리에서 노란리본이 흔들리는 가방을 메고 지나치는 수많은

청소년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매번 세월호가 과거의 아픔에 머물 수 없다는 걸 실감한다. 어른들의 시간은 멈췄지만 아이들의 시간은 계속 흐른다.

"천일을 하루처럼 보냈다"고 했다. 우리도 어렵듯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2014년 4월 16일에 멈춰있던 시간이 딱 하루가 지났다. 그 힘겨운 하루를 버텨낸 힘은 어쩌면 생생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경쾌한 발소리였는지도 모른다. 타인의 슬픔으로 지나치기에는 너무 가까운 그 목소리를 우리는 매번 일상에서 듣는다. 어떤 아픔은 마음에 화인(火印)처럼 남는다. 그 상처를 마음의 문신처럼 간직했던 사람들이 조용히 광장을 매웠다. 각자의 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한 명 한 명이 보듬던 불빛들이 모여 작은 희망을 만들어 갔다. 희미하게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1000일은 우리가 도저히 익숙해질 수 없는 아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는 시간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1000일 추모음악회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오늘도 수고했다"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다시 꽃 피운다"고 말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오랫동안 박수치고 소리 지르며 씩씩하게 울 수 있었다. 행사가 끝난 후 로비에서 붉어진 눈시울로 인사를 건네며 잡아주던 엄마들의 손은 따뜻했다. 창밖으로 세월호를 들어 올리는 두 손이 굳건하게 빛났다.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기자수첩에 실린 내용은 브라보안산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월대보름 행사 다양 연 날리고, 달집 태우고... '안녕 기원'

지난 2월 11일(토), 새해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 대보름을 맞아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예로부터 정월 대보름의 달빛은 질병과 재앙을 밀어낸다고 여겨졌다. 달을 보며 마을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기원하기 위해 부럼 깨물기, 귀밝이술 마시기, 오곡밥 먹기, 줄다리기를 즐기던 큰 명절이었다. 시대는 변했지만 정월 대보름을 맞아 축제를 즐기는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만은 변함이 없었다.



안산문화원, 달집 축제

안산문화원 주차장에서는 도심에서 쉽게 만나기 어려웠던 전통놀이 한마당과 달집 축제가 펼쳐졌다.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기차기, 널뛰기 등을 즐기는 아이들과 어른들을 위해 안산시 행복예절관이 준비한 떡과 따뜻한 차까지 함께 해 입도 즐거운 축제현장이었다.

소원 종이를 적어 달집에 묶는 이들의 모습에서는 가족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묻어났다. 서서히 해가 지기 시작할 즈음 풍물마당 터주의 신명나는 공연과 안산시민의 만복을 비는 고사가 열리고 한해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자리에 함께

고잔2동, 희망의 연날리기 대회

중앙초등학교 운동장에서는 고잔2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한 '희망의 가족 연날리기 대회'가 열렸다.

연날리기에 앞서 참가자들은 주민센터에 모여 희망 메시지를 담아 연을 직접 만들었다. 한낮이라 햇살이 좋고 바람도 많이 불어 연날리기에 딱 좋았다. 대부분 가족 참가자가 많아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쏟아졌다. "더 나이 들기 전에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남기고 싶어 참여했다."는 김유진(34세) 씨 뒤로 '우리 큰 딸, 올해는 꼭 시집가게 해 주세요'라고 적힌 연을 어머니가 펼쳐 보이자 지켜보던 유진 씨와 가족들이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김성남 고잔2동장은 "대회가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데, 가족끼리 연을 만들며 웃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어려운 경제도 잘 풀리고 주민 모두가 한 해 동안 무탈하게 잘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한 모두 떡과 귀밝이술을 나눴다. 대나무로 쌓아 올린 달집에 불이 붙고 짹 짹 대나무 타는 소리와 활활 타오르는 달집을 보며 시민들이 환호했다.

달집에 소원 종이를 매달던 김도현(선부초 6) 어린이는 "수영대회 꼭 우승하게 해달라고 적었어요.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라며 환하게 웃었다. 옆에서 아이를 지켜보던 아빠도 "탄핵문제가 빨리 마무리되고 국민을 생각하는 바른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불안정한 시국을 반영하듯 나라의 안정을 소원으로 빈 이들이 많았다. 달집축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소방대원과 소방차가 함께 하며 시민의 안전을 지켰다.

송민아 명예기자 junseo1000@hanmail.net

사진 _ 김진국 기자

1952년생(만65세) 어르신 무료 폐렴 예방접종 안내

- **접종일시** 2017년 연중(3월~8월까지 집중 접종기간)
- **접종장소**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 **접종대상** 1952년 어르신(※ 만65세 이후 노인폐렴(폐렴구균23가 다당질백신)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
- **준비물** 신분증
- **문의** 상록수보건소 ☎ 031)481-5971~3
단원보건소 ☎ 031)481-3513~5

상록수보건소「한방진료실」이용안내

- **이용대상** 안산시민 (연령제한 없음)
- **진료시간** 평일 오전9시 ~ 오후 6시(※점심시간 12:00~13:00)
- **치료질환** 감기, 순환기계·근골격계질환 등 (관절염, 어깨통증, 요통)
- **진료내용** 침시술 및 한약처방, 적외선 치료
- **침시술 및 한약처방, 적외선 치료**

진료내용	소요시간	진료비	비고
침시술	30분	1,100원	★ 진료비 무료대상자 (증빙서류 지참요함) - 만 65세 이상 - 장애인 1~3급 - 독립/국가 유공자 등
침시술 + 한약처방(5일분)	40분	2,200원	

- **준비사항**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카드 지참
- **문의** 상록수보건소 031-481-5988, 단원보건소 031-481-3488

문화다양성교육 여성강사 양성교육 참여자 모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교육을 진행할 여성강사 양성교육에 참여할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모집기간** 2017. 2. 13(월) ~ 2017. 3. 10.(금)
- **교육기간** 2017년 4월 ~ 11월 격주 1회 (8월 여름 방학)
- **대상** 다문화와 아동교육에 관심이 있는 여성 12명 (무료교육)
- **문의** 초지복지관 복지서비스팀 (T.031-363-0408)

신안산대학교 디지털포토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 **원서접수** 2016. 12. 19(월) ~ 2017. 3. 9(목) 선착순 마감
- **원서교부** 신안산대학교 사회교육원 및 홈페이지 다운로드
- **접수방법** 직접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 **문의** 031-490-6187 FAX : 031-490-6010
-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안산대학로 135

희망잡(job) 고(go) 채용박람회

- **개최일시** 2017. 3. 2. (목) 14:00 ~ 16:00
- **장소** 안산시청 대회의실
- **참여대상** 취업을 원하는 여성 구직자
- **문의** 일자리센터 031-481-2882

Interview



안산소방서
한광윤
소방장

우수소방장 표창 “수상” “배려하면서 함께 살았으면”



겨울철이 되면 화재나 응급환자들이 많이 발생한다. 특히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다급한 순간의 현장도 많다. 언제나 그곳엔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119 구조대원들이 있다. 안산의 지킴이로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슈퍼맨의 역할을 다하는 안산소방서 한광윤 소방장을 만났다. 한 소방장은 지난 1월 119우수소방관으로 선정돼 표창장을 받았다.

Q 언제 소방관이 됐나.

A 1997년도 경기도 소방공무원으로 안양소방서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올해 20년째며, 안산에서 활동한 것은 3년째다.

Q 소방관이 된 계기가 있었나.

A 소방장런 학과를 졸업하고 소방관이 되는 것을 목표로 준비했기 때문에 다른 직업은 생각하진 않았다.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만큼 보람도 많다. 지금도 만족하고 있다.

Q 현장 대응할 때 불편한 점이 있다면.

A 소방서는 구조대, 구급대, 현장진압 등 많은 분야가 있다. 나는 119구조업무를 맡고 있다. 구조대원으로서 화재나 구조 현장을 찾아 출동하게 되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아쉬운 점이 많다. 드라이버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거나 응급환자가 아닌 데도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구조요청을 했을 때는 허탈감이 든다. 이 시간에도 정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얼마 전 5단지 화재 현장에서 복도에 쓰러져 계신 분을 구조대원들이 안전하게 대응 조치하여 상황을 수습했다. 그럴 때 보람을 느낀다.

Q 교대근무를 하면서 힘든 점이 있다면.

A 예전에는 24시간 교대였는데 지금은 주·야 교대근무라 크게 불편한 점은 없다. 가족들도 처음보다 걱정도 덜하고 아내와 아이들이 뿌듯하게 지켜봐주기 때문에 힘이 난다.

Q 안산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 안산이라고 하면 거칠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 힘들 것이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겪어보니 그렇지 않았다. 나보다는 약한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함께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 역시 제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겠다.

Q 끝으로 소방관으로서 한 말씀.

A 소방관이 힘들고 어려운 직업은 맞다. 위험이 많이 따르지만 다른 대원들 모두 한 가족으로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마치는 그 날까지 함께하기를 바란다.

인터뷰 내내 겸손하고 온화한 미소를 보였던 한광윤 소방장과 임국빈 소방서장을 비롯한 모든 대원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안전한 안산을 부탁하는 것으로 인터뷰를 마쳤다.

김 선 명예기자_itsumo9011@naver.com
사진 _ 김진국 기자

금연!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금연은 혼자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Self하지 말고 **Help**하세요!

안산시 상록수·단원보건소가 당신의 금연과 함께 하겠습니다.



담배연기 없는 클린PC방 지정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과 성별이 이용하는 PC방에서 다른 이의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흡연하는 이들을 보면 짜증이 나지만 말리기도 쉽지 않다. 안산시는 금연준수 PC방을 선정해 우수PC방으로 지정한다. 우수PC방은 보건소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업주 스스로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2월중으로 지역 내 PC방 169개 업소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마칠 예정이며, 현장 모니터링단이 금연준수가 계속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연단속단원인 A씨는 “업주들은 흡연을 말리기는 어렵다. 우리가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하고 계도가 이어지면서 점차 금연이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상록수보건소 금연담당자는 “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안산시 지정 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앞으로 현장 모니터링단의 평가항목을 모두 충족한 우수PC방 20개소를 지정하고 업주 스스로가 사업에 적극 나서도록 혜택을 줄 계획이다. 간접흡연자의 피해를 줄이는데 더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 문 의: 상록수보건소(031 481-5926)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